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11.11. ~ 11.17.)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왕하 24 - 대상 10	히 6 - 12
	개인	욘 3 - 암 6	시 144 - 눅 1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성도의 견인		
	<p>시편 51편 10-12절</p> <p>10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p> <p>11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p> <p>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p>		



시편 144편 / 복된 백성들**개요**

- 1-4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5-11 구원하시는 하나님
 12-15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1,2절). 본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3,4절). 그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시길 기도합니다(5-8절).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9-11절).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따라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12-14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15절).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어 그를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요일 4:19) 그에 속한 백성들의 복은 그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 안에 모든 인생의 풍성함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앞서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에도 앞서 가시는 줄 압니다. 사랑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11월 12일(화)

왕하25

히7

암1

시145

시편 145편 /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어

개요

1-10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11-21 하나님 나라를 찬양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알고 높이고 찬양합니다(1-3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위대하심을 대대로 선포하고 노래하겠다고 고백합니다(4-7절).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8-10절). 주의 영광은 주님 나라에 나타납니다(11-13절).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그를 양망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14-20절). 다윗은 그러한 주님의 영예와 이름을 송축합니다(2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히 12:28). 이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택하여 부르시고 왕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야말로 진정한 왕이 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왕직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며 사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를 기쁨으로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46-147편 / 우리 왕을 찬양하라**개요**

146:1-10 영원한 왕을 찬양하라

147:1-20 인자하시고 위대하신 왕을 찬양하라

시편 146편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이자 기도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시 146:1,10).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서원합니다(시 146:2). 그는 사람들을 향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칩니다(시 146:3,4). 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하신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시 146:5,6). 그는 하나님이 억눌린 사람들과 주린 자들과 갇힌 자들, 그리고 맹인들, 비굴한 자들, 또 의인의 하나님이심을 압니다(시 146:7-9). 그의 영원한 다스리심을 찬송합니다(시 146:10).

시편 147편은 자비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시 147:1-3). 창조주의 능력으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십니다(시 147:4-6).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며 나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시 147:7-11). 예루살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시 147:12-20).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당한 자를 보고, 그의 상처를 싸매고 돌봄으로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눅 10:34). 인자하심을 바라며 내민 손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잡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시편 148편 /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개요**

1-6 창조주 하나님

7-14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편 148편은 우주적인 찬양입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만물을 주님을 향해 찬양하는 자리로 부릅니다(1-4절).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5,6절). 그러므로 또 다른 피조물 역시 찬양의 자리로 부름 받습니다(7-12절). 오직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찬양해야 합니다(13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뿔(왕)을 높이셨으니 그 백성 이스라엘 역시 찬양함이 마땅합니다(14절).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인해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그가 행하신 일과 그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주를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홀로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찬양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존재를 높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도 해야겠지만,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찬양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깨닫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높여 부르는 마땅한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11월 15일(금)

대상5,6

히10

암4

시149,150

시편 149,150편 / 할렐루야

개요

149:1-9 구속주 하나님

150:1-6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편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자신을 지으시고 왕이 되시는 주님을 그 백성이 함께 찬양함이 마땅합니다(시 149:1-3).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시 149:4,5).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입으로는 주를 찬양하고 칼로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드리는 삶의 찬양을 드리라고 외칩니다(시 149:6-9).

시편 150편은 모든 시편의 결론으로써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드리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를 찬양하라고 외칩니다(시 150:1). 그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시 150:2).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시 150:3-5). 또한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시 150:6).

모든 만물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그를 진정으로 찬양한다면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역시도 그 찬양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오케스트라 연주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듯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입술의 고백과 전생애를 통한 삶으로 드러짐이 마땅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사가 아닌 것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호흡의 순간마다 주를 높여 부르는 삶으로 시편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 모든 생애가 주님을 높여 부르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1-38절 / 증인의 이야기**개요**

- 1-4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 5-25 사가랴에게 전해진 소식
- 26-38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

누가복음은 한 증인의 기록입니다(1-4절). 유대 왕 헤롯 때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았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5-7절). 그가 제사장 직무 순서를 맡을 때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8-11절). 뜻밖에 그는 아들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는데, 요한이라는 이름과 함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12-20절).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21-25절). 그 소식이 있는지 여섯째 달이 되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26-30절).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다윗의 왕위를 잇는 자로 주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합니다(31-33절). 마리아는 너무 놀랐지만 믿음으로 그 소식을 받습니다(34-38절).

누가는 증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 복된 소식을 기록하여 알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진 사건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과 그를 예비한 요한의 역사는 모두 주님이 철저히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각 사람들에게 알리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갑니다. 사람들은 그 일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로운 역사의 연장선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복된 소식의 첫 날로부터 이루신 모든 역사가 우리의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의 증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도 그와 같은 증인의 목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1장 39-80절 / 두 찬송**개요**

39-56 마리아의 찬양

57-66 요한의 탄생

67-80 사가랴의 찬양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사가랴의 집으로 가서 아내 엘리사벳을 만납니다(39,40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에게 복을 선언합니다(41-45절). 이에 마리아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46-56절).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아들 요한을 낳습니다(57-66절).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을 찬송합니다(67-79절). 요한이 자라 심령이 강하여지며 주님의 일을 하기까지 준비됩니다(80절).

마리아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찬양합니다. 그의 노래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에 대한 기쁨과 영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과 예언의 성취임을 깨달았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마리아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누가복음에는 사가랴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부름 받아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을 맡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출세하거나 높여지는 것보다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됨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역사에 감격하여 주님의 위대하시며 자비로우신 일들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풍성한 열매를 더하는 순모임

<약 3:1-12, 길들이지 못하는 혀>

1. 나는 어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바라나요?(고전 3:9)
2.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약 3:2)
3. 혀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약 3:3-6)
4. 혀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진 혀가 어 떤다고 말하나요?(약 3:8)
5. 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약 3:9,10)
6. 혀를 다스려 온전함에 이르게 하실 분은 누구신가요?(약 1:4)
7.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심어져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고 있 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우 리를 삼으십니다. 주 안에서 혀를 다스리는 일은 주님의 일에 포함됩니 다. 주님의 일을 맡은 동역자로서 내 혀를 주께 맡기며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나눔

1. 교회를 위한 기도

- 1)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살도록
- 2) 성숙한 신앙을 가진 교회로 자라나도록
- 3)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도록
- 4)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 5) 어린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2. 나라를 위한 기도

- 1)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도록
- 2) 사회와 경제가 안정을 찾도록
- 3) 다음 세대 지도자가 준비되도록

3. 나를 위한 기도

- 1)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며
- 2)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